Child First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
Annual Report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보고서 2018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꿈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 |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588-19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개인적·즉각적 문제 해결을 넘어 근본적·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기초보건과 복지 | 교육과 여가문화 | 특별보호 조치 | 국제협력 | 연구조사 | 일반 (지역사회 복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 사업보고서
발행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행일 : 2019. 05
발행인 : 차흥봉
편집인 : 이제훈
기획 및 편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실
디자인 : 오즈커뮤니케이션

Contents

PROLOGUE 04
CEO 인사말 06
2018 HIGHLIGHT 08
후원자 주요 문의사항 18
재정보고 21
2018 국내사업 24
2018 해외사업 36
아동복지연구소 46
방송/캠페인 48
홍보대사 52
후원자 활동 5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아동중심 | 투명성 | 전문성 | 변화도전

194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이후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기에 빈곤아동과 6.25 전쟁고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난민구제사업을 위해 클라크목사가 세운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 한국지부 설립으로 시작됐습니다. 1960년까지 아동복지에 대한 뚜렷한 정부정책이 없었던 한국에서 CCF의 아동구호는 여러 외국 원조기관 중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사실상 독보적이었습니다.

1990s
-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 실시
- 해외지원사업 시작
- KBS <사랑의 리퀘스트> 공동진행

2000s
- 대북지원사업 시작
-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 창립 및 가입

2010s
- 아동복지연구소 설립
- 해외사업국가 확대(남수단, 르완다, 말라위, 탄자니아)
- Meta NPO 정책 확정(공모지원사업 확대 등)
-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수상(비영리공익부문)

2018
- 아동옹호센터 신설(8개소)
- 재단 창립 70주년
- 아동옹호대표기관 선포
- 재단 역사자료관 개관
- 정기후원자 50만 육박















1948
-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 (Christian Children's Fund) 한국 지원 시작

1960s
- 아펜젤러어린이회 거택구호사업 실시 (현 사회복지관 효시)

1970s
- 불우아동결연사업 시작
- 소식지 단비 창간호 발행 (현 소식지 초록우산)

1980s
-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소
- CCF 지원 종결, 국내순수 민간기관으로 독자적인 사업 시작

201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년,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70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 7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이어가며, 모금전문가 육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 마케팅 강화, 보편적 아동 행복을 위한 권리 옹호 캠페인 전개, 후원자 서비스 강화 등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70년, 감동주는 10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th Anniversary

존경하는 후원자님,

2018
주요사업과 성과

지난 2018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궤를 그려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창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제 7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감동주는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로 후원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총 지원 아동 수 **1,205,300** 명

활동국가 수 **27** 개국



지난해 재단은 지난 70년 동안 일관되게 수행해온 사각지대의 빈곤아동돕기,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전국 8곳에 독립 사업기관으로 설립된 아동옹호센터를 중심으로 대표사업인 아동옹호사업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해 왔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미래에서 온 투표-2018 전국동시지방선거편>, 아동 놀 권리 증진 캠페인 <어디든 놀이터>, 쾌적한 통학로를 위한 <그린로드대장정> 등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여 적지 않은 변화들을 이뤄냈고 아동의 바른 인성함양과 세대 간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110,218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과 연대하여 협력사업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직접사업분야 개척에 힘을 쏟아 지난해 추가로 몽골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4만 6천여 명의 북한 아동과 1,100가정에 식량과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동복지사업의 자랑스러운 지난 70년의 업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줄 역사자료관 개관, 감동의 제7회 나눔음악회, 최고 수준의 아동복지 국제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9
전망과 계획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의 빈발, 초저출산 문제, 아동에게 닿지 않는 법과 제도까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아동의 환경개선, 부모의 인식 변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역사를 선도해 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올 한 해도 아동옹호 기치 아래 빈곤아동 지원을 비롯,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아동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인성교육 등 아동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캠페인과 사업은 물론 계속해서 제2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를 키워낼 인재양성사업과 문화예술사업 등 우리 아이들 삶 곳곳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초록우산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Meta NPO로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해외사업은 국제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 확대는 물론 NGO파트너를 통해 지역의 니즈와 참여를 반영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북한아동돕기사업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연구소는 아동들의 삶의 실태, 의식, 희망사항 등을 심층 조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생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투명경영에 힘쓰며 아동복지사업의 책무성을 중시해 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더욱 진정성 있게 후원자님들의 뜻을 받들며 어려움에 갇혀 있거나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야말로 재단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국내외 사업장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에 초록우산이 함께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 세계 어린이의 행복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은 아동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11개 단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900만 명 이상의 아동 및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세계 50여 개국에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지원 아동 수

1,205,300명

활동 국가 수

27개국

아프리카 14개국

가나
남수단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 12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남미 1개국

볼리비아

지역본부 19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회복지관 7

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6

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아이존 1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

아동옹호센터 8

아동친화적인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옹호활동과 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2), 전남, 경북,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6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발견·보호·치료 의뢰 등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구, 광주, 강원(2), 전남, 제주

한사랑공동체 1

장애아동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사랑마을, 한사랑학교, 한사랑장애영아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 등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창립 70주년

CCF(Christian Children's Fund,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의 지원으로 시작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since
1948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함께한 재단은 국내, 북한, 해외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아 재단은 역사자료관 개관, 70년사 발간 등을 통해 그간의 복지사업을 돌아보고,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사업체계에 적용하여 아동옹호 기반의 사업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단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Child Protection Beyond Borders 개최

지난해 10월, 재단 창립 70주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Child Protection 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니콜라스 알리푸이 예일대 교수를 포함해 호주, 독일, 우간다 등 세계 14개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아동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 방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국
14개국

참석자 수
317명



재단 창립 70주년 기념 캠페인

매일매일 어린이날, 매일매일 초록우산



재단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2018 레벨업 70 '매일매일 어린이날, 매일매일 초록우산'은 현장 참여가 가능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기부행사가 더 이상 착한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닌 '나도 할 수 있는' 보편성, 대중성을 가진 행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70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본 캠페인에는 후원자와 아동 그리고 셀럽이 참여하여 나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전했습니다.

온라인 노출 총 건수
235,196건

후원금
204,000,000원

참여자 수
110,218명

수상자 수
679명

2018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진행

캠페인

대한민국 아동의 인성을 자라게 하고 아동권리 헌장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아동권리 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세대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MBC, 청소년활동진흥원과 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초·중·고교생 총 110,218명이 스승, 부모,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여 총 679명이 수상하였습니다.





UNCRC NGO 민간보고서 발간

해외사업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아동권리실무그룹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인정하고 아동권리관점 도입을 촉구하고자 '아동권리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제5·6차 한국 UNCRC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해 11월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민간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몽골 신규 지원 시작

해외사업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며 2018년 몽골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몽골의 아동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유아교육 및 아동보호를 포함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수
10,038명
11개 지역,
13개 사업기관 참여

미래에서 온 투표

옹호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아동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로 진행된 아동공약토론회 및 설문조사에 10,038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별 7대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아동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를 찾아 공약이 담긴 공약박스를 전달했으며,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부산, 경남, 경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의 당선자가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18 활동멤버 (누적)
77명

공연횟수
5회

함께 그린 합창단

후원자 활동

모든 아이들이 초록빛(Green)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후원자 합창단은 오늘도 노래합니다. 2018년 탄생한 <함께 그린 합창단>은 바쁜 와중에도 진심을 담아 연습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눔공연을 펼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후원자님과 아이들 그리고 관객들이 '나눔'을 계기로 함께 이어지기를 바라는 첫 번째 공연 '너와 나를 잇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노래할 함께 그린 합창단을 기대해봅니다.

INTERVIEW

2018 국내·외 주요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묻다



INTERVIEW 1 해외 아동보호 사업

Q1 최근 우간다에서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동이슈는 무엇인가요?

A1 우간다는 10대 청소년의 임신율이 아프리카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 내 체벌, 신체 혹은 정서적 학대, 조혼 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2 어린이재단 우간다에서 아동이슈와 관련해서 2018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A2 우간다 북부 키트굼(Kitgum) 지역에서 아동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트굼 지역은 오랜 내전으로 공공 시스템이 무너진 곳인데요. 재단에서는 학교와 경찰을 포함해서 지역 정부 차원에서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학대를 경험했을 때 학교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사업을 수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3 지역사회의 관습을 바꾸는 일이요. 조혼의 경우, 시골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단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Q4 반면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4 약 5,000명의 아동과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게 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2018년 7월, 30명의 아이들이 의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들도 제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사업 초반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기를 꺼려했지만 차츰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뜻깊고 행복합니다.

Q5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사업 담당자로서 기대하는 점과 후원자님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5 특별히 우리 우간다 아이들을 지원해주시는 한국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키트굼에서 시작된 아동보호 사업이 나비효과처럼 먼 훗날 우간다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놀 권리 옹호사업 INTERVIEW 2

Q1 아동의 놀 권리, 왜 중요한가요?

A1 우리 아이들은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자기조절 능력과 주도성 및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놀이들의 경우 자율적으로 규칙과 승패를 정하고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지요. 놀이는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냄으로써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천편일률적이고 경쟁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률 48.1%(통계청, 2018 사회조사), OECD 회원국 중 아동 삶의 만족도 22위(2016)라는 부끄러운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놀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재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A2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든 놀이터', '팝업 놀이터', '놀이키트 제작·배포' 등 아동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놀이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국가, 지자체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시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들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도 동시에 이뤄져 한 사업체계 안에서 아동의 두 가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현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A3 아동 놀이환경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직도 교내 놀이공간과 시간, 놀잇감들은 부족하고, 지원된 곳조차도 어른들의 선심성 정책과 일회성 지원에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정책과 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단 아동들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못한 채 없어지고 있어요. 아동들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고 동시에 의무이행자(교사, 학부모,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인식이 변화될 때 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놀이터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사업참여 아동 | 전남 군남초등학교 **조에녹**

놀 권리 옹호사업 **INTERVIEW 3**

Q1 재단, 선생님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1 항상 학교의 놀이시설이나 물품들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들의 의견과 상관없는 물품이나 놀잇감이 제공되었는데 이번 놀이터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 놀이터 그림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재밌었어요!

Q2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놀이터가 완성됐을 때 소감이 궁금해요!

A2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빨리 만들기보다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완성된 걸 보니 저희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놀랐어요. 저희가 만든 공간에서 뛰놀 수 있어 신기하기는 했지만 이제 6학년 졸업반이라서 많이 놀지 못하는 건 아쉬워요. 다음에는 6학년들을 위해서 학기 초에 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Q3 조에녹 아동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A3 우선 학교 수업시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뛰어놀고 싶은데 수업시간도 공부해야 할 양도 많다보니 그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학교 수업시간이 줄어들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수업시간과 놀이시간에 좀 더 웃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동행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재단은 후원자님과의 소통으로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후원에 대한 다섯 가지 궁금증



0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칙 1.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사업 및 예산체계를 운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사업 및 예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예산체계 운영을 통하여 사업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원칙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내부 예산관리 절차를 준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비용을 집행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 요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조정합니다.

원칙 3. 내부 감사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정부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받습니다.

- 내부 감사: 모든 재단 임직원은 윤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감사실에서는 매년 내부 감사제도를 통하여 전국 사업기관의 사업 및 회계를 상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부 회계감사: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결산 결과를 검토받습니다.
- 정부감사: 주무관청인 서울시 중구청을 포함하여 각 사업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받습니다.

0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재단은 국내 아동들을 위해

방법 1. 후원금 지원(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 인재양성비의 정기 및 일시 지원)으로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른 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법 2. 상담(가정위탁보호, 아동학대예방, 심리치료, 양육상담) 및 전문 프로그램(자립, 학습, 인성, 부모교육 등) 지원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방법 3. 옹호활동을 통한 정책 개선(아동참여 정책제안, 제도개선 활동, 아동환경 개선,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후원금 지원
매월 지원되는 정기후원금으로 아픈 엄마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옹호활동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차별이 없도록 아동 주거환경 개선, 병원비 국가보장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옹호활동을 펼쳐갑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일주일에 두 번 대구복지관 아동가족 심리센터 마음튼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용기와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몸이 아픈 어머니를 보며
마음의 위축과 우울감을 느끼는 지은이

재단은 해외아동들을 위해

방법 1. 아동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해 보건의료, 식수위생, 자립 지원, 교육, 아동보호 사업을 진행합니다.

방법 2. 인도적 지원(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 난민 지원) 활동을 통해 자연재해, 분쟁 등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03 방송이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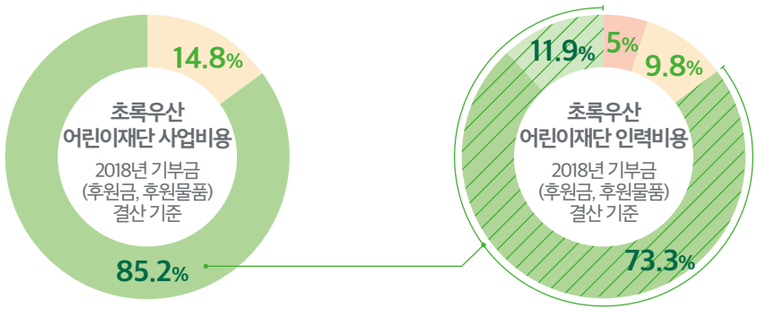
방송이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아동에게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아동, 보호자와 함께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논의하고, 후원금이 의도한 방향대로 사용되어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천/접수 → 사례심의(후원금 사용계획 및 자립계획) 지원 결정 → 사례관리 → 결과보고

*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이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아동과 방송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0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직원의 인력비용은 어떻게 지출되나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인력은 국내 및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인력과 일반관리 및 모금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력비용의 45%는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의 80% 이상은 국내 및 해외사업 수행인력으로 본부를 포함하여 아동옹호센터,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관, 한사랑공동체 등의 전국 사업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부금(후원금, 후원물품)의 85.2%를 국내 및 해외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며, 14.8%를 일반관리 및 모금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수행 비용 중 11.9%를 사업수행 인력비용으로, 일반관리 및 모금비용 중 5.0%를 일반관리 및 모금을 담당하는 인력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2018년 전체 결산에서 보조금 및 수익사업, 기타 잡수익, 차기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기부금(후원금, 후원물품)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5 재단에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지급, 복지서비스 지원, 자원연결을 넘어 사회인식개선,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도 기존 복지사업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일에도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예산이 부족해 개보수가 어려운 놀이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거기본법」의 개정으로 주거 지원계층에 '아동'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를 촉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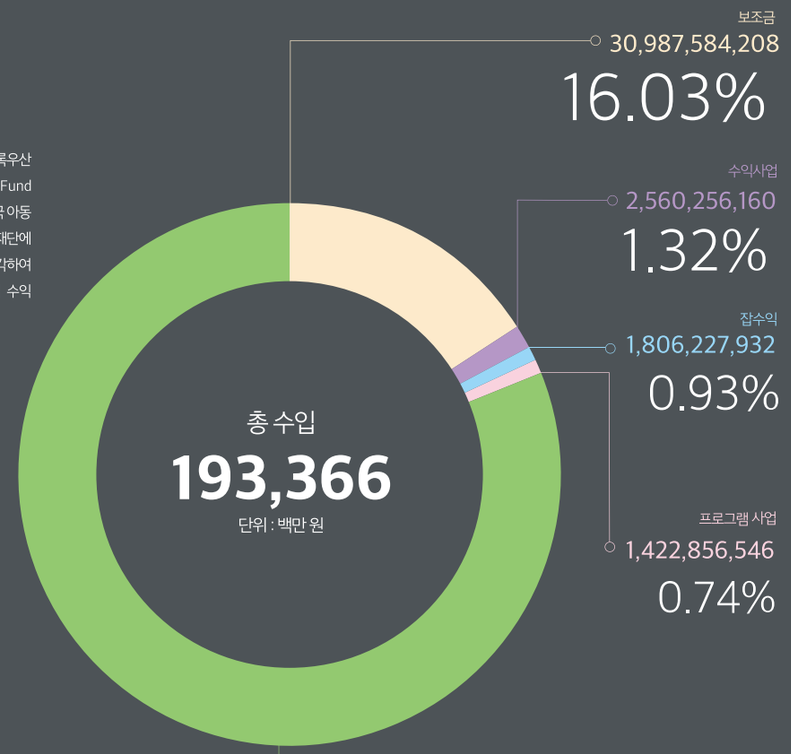
투명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재정보고 2018

수입내역

단위 : 원

*수익사업의 주수입원은 198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신인 CCF (현 ChildFund International USA)가 38년 간의 한국 아동 지원을 종결 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남겨준 서소문 사옥 및 토지 등을 매각하여 마련한 어린이재단 빌딩의 임대사업 수익입니다.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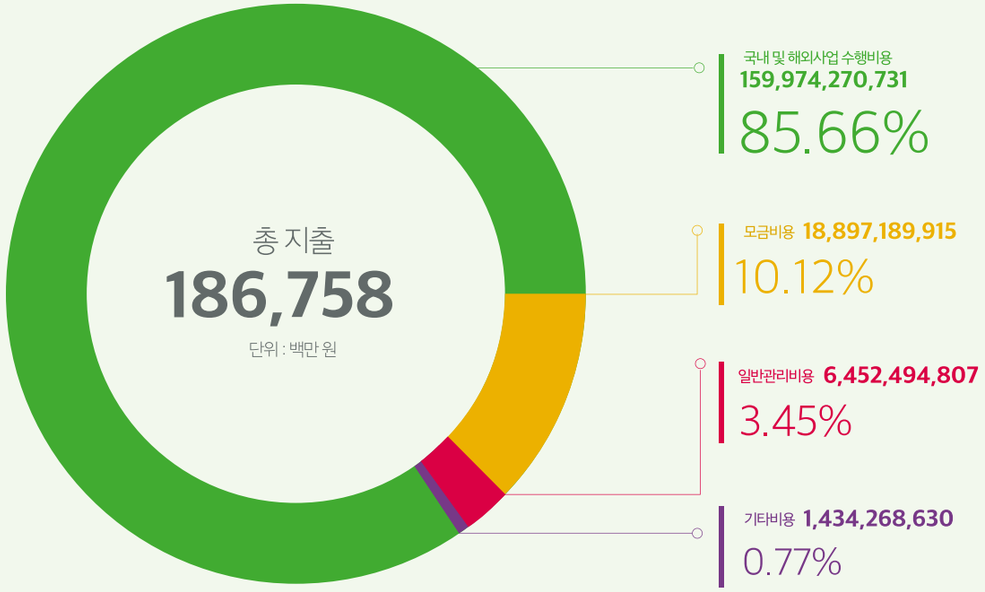
구분	금액	구성비	내용
기부금	156,589,470,284	80.98%	개인, 기업후원자, 단체의 정기 및 일시 후원금품 수입
└ 후원금	153,632,019,643	79.45%	정기 및 일시 후원금 수입
└ 후원물품	2,957,450,641	1.53%	기증받은 물품 수입
보조금	30,987,584,208	16.03%	정부보조금 수입
수익사업	2,560,256,160	1.32%	빌딩임대사업 수입
프로그램사업	1,422,856,546	0.74%	복지 프로그램 운영수입
잡수익	1,806,227,932	0.93%	잡수입, 이자수입 등
총계	**193,366,395,130**	**100%**	

2018

지출내역

단위 : 원

*재정보고 및 투명경영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사업수행 비용구분	사업영역	금액
공익목적 사업비용	국내 및 해외사업 수행비용	159,974,270,731
	일반관리비용	6,452,494,807
	나눔사업비용	18,897,189,915
기타비용	기타비용	1,434,268,630
2018년 지출 총계		**186,758,224,083**
차기이월금		6,608,171,047
2018년 결산 총계		**193,366,395,13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8년 결산기준 국내 및 해외사업 수행비용 159,974백만 원(85.66%), 모금비용 18,897백만 원(10.12%), 일반관리비용 6,452백만 원(3.45%), 기타비용 1,434백만원(0.77%)을 지출하였습니다.(차기이월금 제외)
* 본 재정보고는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35호)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이전 2017년 회계연도까지의 재정보고는 (1) 사업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2) 국세청 결산서: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부금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하며, 감사 및 예결산 결과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단위: 원

사업수행 비용구분	사업영역	금액	구성비(%)	사업내용
국내사업 수행비용	**국내사업 합계**	**140,639,279,643**	**75.30%**	
	아동권리실현의 기반	6,279,964,406	3.36%	아동권리교육, 권리기반강화 정책개선
	시민적 권리와 자유	688,851,016	0.37%	아동참여권리 증진사업(어린이연구원,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어린이기자단 등)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9,496,085,087	5.08%	학대피해아동위기개입, 학대피해아동일시보호, 폭력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7,951,531,393	9.61%	부모교육, 가족기능강화, 가정위탁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양육지원
	기초 보건과 복지	76,401,524,752	40.91%	기본생활 지원사업(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심리치료, 건강증진, 장애아동 지원, 안전환경조성
	교육과 여가문화	23,025,192,869	12.33%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드림합창단, 문화예술 지원, 초록우산 도서관/장난감도서관, 여가놀이 지원, 인재양성비 지원, 인성함양 지원, 교육지원
	특별보호조치	79,503,902	0.04%	난민아동 지원
	지역사회복지	5,967,055,740	3.20%	장애인복지,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국내사업 연구조사	749,570,478	0.40%	국내사업 연구조사
해외사업 수행비용	**해외사업 합계**	**19,334,991,088**	**10.36%**	
	기초 보건과 복지	8,952,056,957	4.79%	후원아동 지원, 모자보건, 질병퇴치, 기초 보건, 영양 지원(북한 지원 포함), 생식보건, 식수위생,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교육과 여가문화	5,021,571,555	2.69%	영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훈련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1,684,153,778	0.90%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그룹홈 지원
	특별보호조치	2,587,192,610	1.39%	긴급구호, 재건복구 및 재난위험경감, 난민 지원
	국제협력	570,538,361	0.31%	국제협력(Global Advocacy 활동, ChildFund Alliance 연대활동)
	해외사업 연구조사	519,477,827	0.28%	해외사업 연구조사
일반관리비용	합계	**6,452,494,807**	**3.45%**	기획, 인사, 회계, 감사 및 IT기획(통합업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나눔사업비용	합계	**18,897,189,915**	**10.12%**	온·오프라인 모금캠페인 수행, 후원서비스(국내외 사업보고서, 기부금영수증 등) 제공
기타비용	합계	**1,434,268,630**	**0.77%**	재단빌딩임대 수익사업 시설관리비 및 인력비용 등
지출총계(차기이월금 제외)		**186,758,224,083**	**10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개인적·즉각적 문제 해결을 넘어 근본적·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아동 지원 사업

초록우산 아래 성장한 첼리스트 장신행

"2018년 초록우산은

전국 8개 아동옹호센터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소통프로젝트 '2018 대한민국시민 in 학생축제' 를 통해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전신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놀이정책 및 제도를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옹호활동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초록우산은

아동중심 사업수행의 내실을 다지며
보다 선도적으로 아동문제에 대응하여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옹호활동 및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동권리 증진	29,372 명
폭력으로부터 보호	235,679 명
기초보건과 복지	81,095 명
가족기능 강화	25,984 명
교육, 여가, 문화 지원	203,286 명
특별보호 일반 등	37,810 명

총 지원 인원

613,226명

2012
지역 콩쿠르 출전 위한
레슨비 지원

2015
제61회 호남예술제
금상 수상
(대회 참가비 및 레슨비 지원)

2016
제6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
(대회 참가비 및 레슨비 지원)

2017
대학 진학을 위한
레슨비 및 교통비 지원,
목표 대학 최종 합격

아동권리증진 & 가족기능 강화

아이들이 스스로 지켜낼 힘을 길러냅니다

아동권리증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게 도와주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권리옹호행동 의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족기능강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교육
4,149명

시민적 권리강화 및 권리기반강화
25,223명

가정위탁 지원
6,881명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지원
1,630명

초록우산 부모교육
614명

기타(양육 지원, 가족기능강화 정책개선 등)
16,859명





교육·여가·문화 지원

놀이를 통해 재능을 키워갑니다



교육 · 여가 · 문화 지원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719명

여가놀이 지원
25,360명

인재양성비 지원
220명

초록우산 인성교육
158,120명

교육 지원
2,248명

기타(초록우산 장난감 도서관, 초록우산 도서관 등)
16,619명

아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전인적인 발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6개), 초록우산 드림합창단(3개)

주요활동: 단원 선발 오디션, 정기연습, 간담회, 문화체험 및 캠프, 연주회 등

경제적, 지역적 제약 때문에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음악을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존감과 사회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활동

구분		일시	장소	출연	비고
제2회 한미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회	1차 공연	2018. 06.28.(목)	세빛섬 IFC컨벤션홀	한미연합오케스트라 (AAYS,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D.K.Kim Foundation 지원
	2차 공연	2018. 06.29.(금)			
제7회 초록우산 나눔음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2018. 10.16.(화)	세종문화회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인재양성

학업·예술·체육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능계발의 기회가 부족한 아동이 미래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이 재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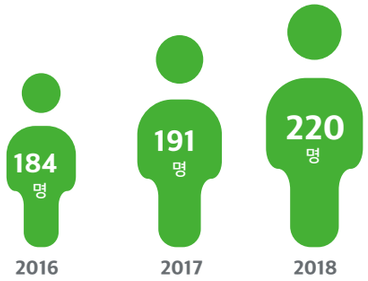


인성요소 12가지(기쁨, 감사, 성실, 존중, 약속, 어울림, 용기, 정직, 협동, 사랑, 배려, 나눔)를 토대로 현장에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강, 4회기, 12회기를 구성하고 아이들이 자율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며 실천하도록 초록우산 인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학년, 고학년을 구분,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 및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가놀이 지원

신체 놀이 활동 등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놀이 공간 조성 및 팝업 놀이터, 놀이키트 제공을 통해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총 지원 아동 증가 수



2018년 분야별 지원현황

체육	141명
예술	59명
학업	20명



사례 정혜인(15) (인재양성 아동 지원)

"희망을 전하는 무용수가 될래요."

15살의 정혜인 양은 9살에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대신해 온 태국인 어머니는 이주노동자로서 밤낮없이 혜인 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무용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비, 안무비 등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혜인 양은 재단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걱정도 덜어드리며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자신감도 갖게 됐다는 혜인 양은 계속해서 무용하는 것이 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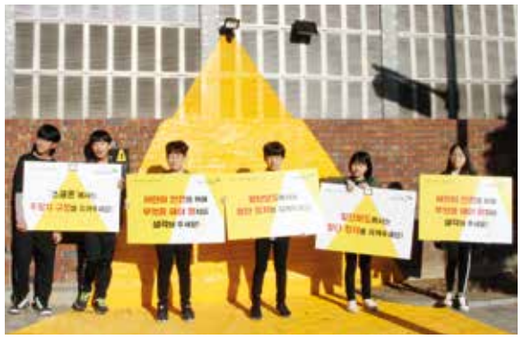


기초 보건과 복지

안심하고 뛰놀 환경을 만듭니다

기초 보건과 복지

아동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며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생활 지원
49,817명

심리치료
470명

안전환경조성
28,748명

기타 (건강증진, 장애아동 지원, 정책개선 등)
2,060명

기본생활 지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주거비, 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자연재해,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수술 및 치료비 등 의료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복비, 학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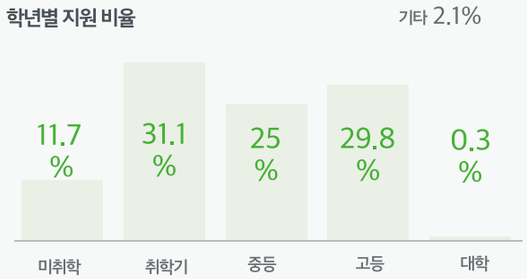
안전환경조성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서 유해요소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대유형별 지원 비율

한부모 38.5%	시설아동 25.5%	친인척 위탁 1.8%
부모자녀가정 20.3%	일반 위탁 1.6%	형제자매 0.2%
대리양육 6.2%	조손가정 4.7%	기타 1.2%

학년별 지원 비율



단칸방 세 모녀 캠페인

사례 김시아, 김현아(가명)_기본생활 지원

다섯 살짜리 현아가 다니기엔 턱이 높던 입구와 세 모녀가 나란히 눕기도 비좁던 단칸방. 지자체 사회복지 직원들과 수차례의 회의 끝에,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오가며 보살펴 줄 수 있는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한 현 거주지를 허물고 신축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고, 후원자 분들의 마음을 모아 위생적이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세 모녀에게 선물했습니다.

변경 전 : 양철로 엮은 담과 대문도 없는 주거외부



변경 후 : 주거 신축으로 깨끗하고 안전해진 새 집 모습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의 상처를 함께 치유합니다



실종유괴예방교육

주요활동: 초록이와 꼭꼭이 교육, 빨간모자 꼭꼭이 교육, 부모교사 교육, 실종유괴예방 캠페인 등

미취학 아동 발달 연령에 맞게 실종, 유괴 발생상황을 이해시키고 예방지침과 대처방법을 익히게 하여 위험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동폭력예방교육(CAP)

주요활동: CAP 아동, 성인(부모, 교사) 교육, CAP Assembly

아동의 안전하고(Safe), 씩씩하고(Strong), 자유로울(Free) 권리 증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으로 아동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방법을 배움으로써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피해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재발 방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위기개입
4,366명

아동폭력예방교육(CAP)
67,257명

학교폭력예방교육 (No-Bullying)
13,430명

아동성폭력예방교육
41,831명

실종유괴예방교육
74,704명

기타(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34,091명

초록우산 스쿨

사례

유은혜(가명) (학대피해 상담 지원)

“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친모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있다는 내용으로 재단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무서워 한 집에서 살기 싫어했고, 부부는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유은혜 씨는 자신이 겪은 불행을 지니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고자 자녀들 이름으로 재단에 후원도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

아동이 당당한 권리주체자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갑니다

-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됩니다

>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택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 3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실증 연구, 세미나 및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주거빈곤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미래에서 온 투표(전국동시지방선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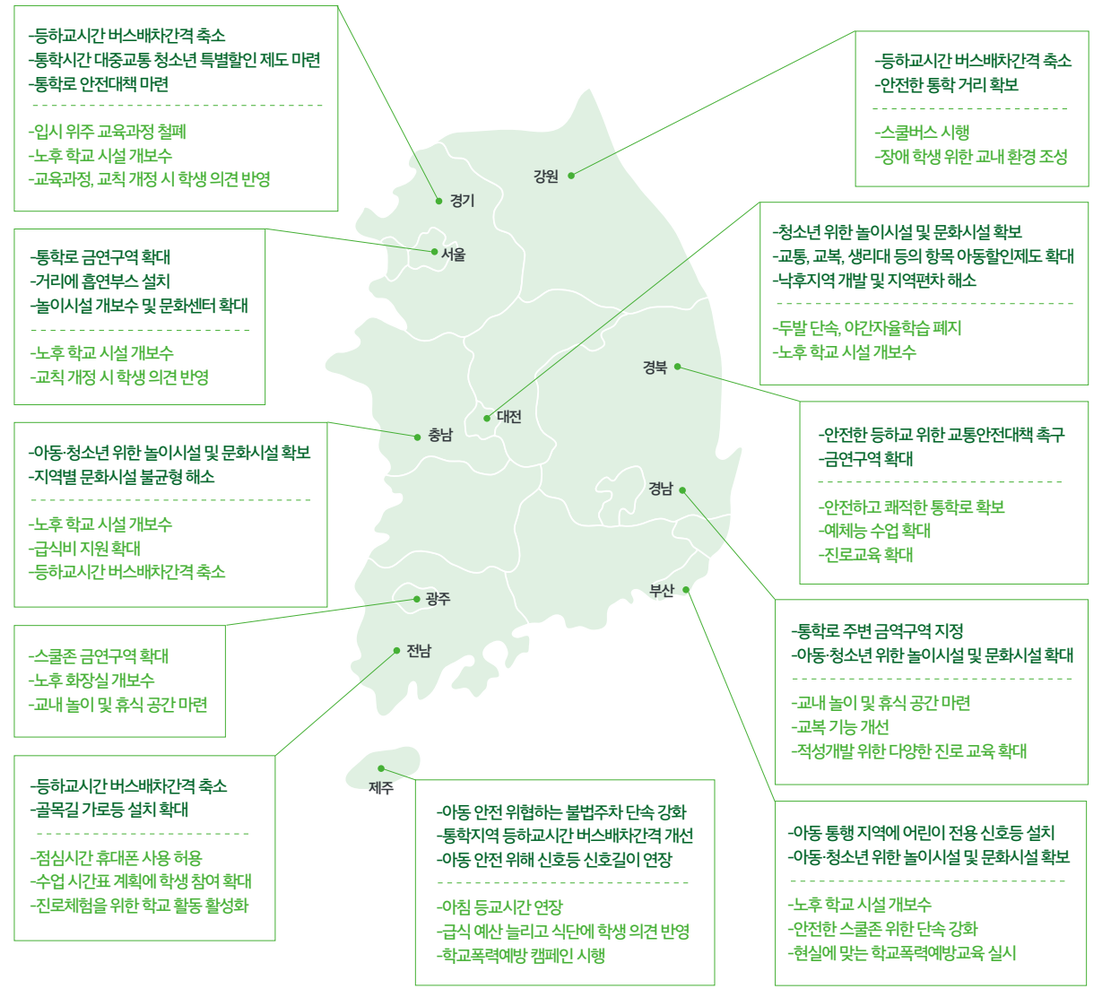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의 의견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지역,
13개 사업기관 참여,
총 참여 아동수 **10,038**명

전국 아동공약토론회 총 52회 개최 → 지역 별 7대 공약 선정 및 11개 지역 동시 아동공약발표회 →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대상 공약박스 전달 및 공약반영 촉구

지역별 아동 제안 주요 공약 반영 현황

시도지사 공약
교육감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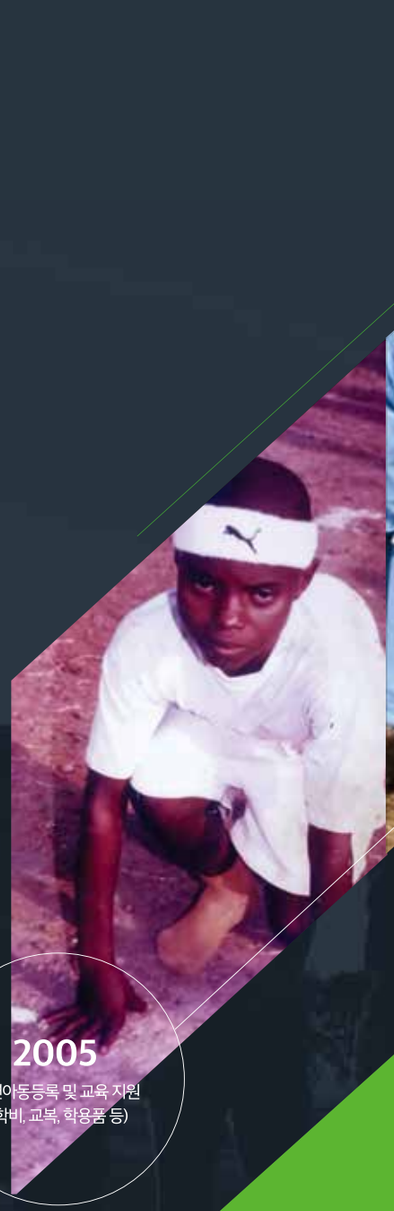
해외아동 지원 사업

Growth Story with ChildFund Korea

"2018년 초록우산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과의 협력 및 직접사업을 통해 전 세계 27개국 59만 여 명의 아이와 그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가장 오랫동안 결연후원 해온 스리랑카 물라이티부 지역 내 16개 영유아발달센터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아동권리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UNCRC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초록우산과 성장한
사회복지사
마라(M. Marah)



2005
결연아동등록 및 교육 지원
(학비, 교복, 학용품 등)



2012
마케니 대학(Makeni Univ.) 입학/
대중매체(Mass Media) 전공



2017
어린이재단 시에라리온
(ChildFund Sierra Leone) 입사

"2019년 초록우산은

아동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애드보커시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아동친화적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5,590명 결연아동후원

24,020명 식수위생 지원

104,466명 인도적 지원

50,249명 교육 지원

83,715명 아동보호 지원

304,006명 보건의료 지원

28 가구 자립 지원

592,074명 총 지원 인원

교육

전쟁에도 아이들의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실의 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교실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안전장비로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도 함께 받고 있어요. 후원자님들께서 선물해주신 예쁜 교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보살필 거예요."

자멜라 (가명, 10세, 반 로크 다우 초등학교 학생)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든든한 토양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성별, 인종, 출생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 주요 교육사업 결과

지원 받은 학교 수
251개

신축 또는 개보수된 교실 및 학교 부대시설 수
4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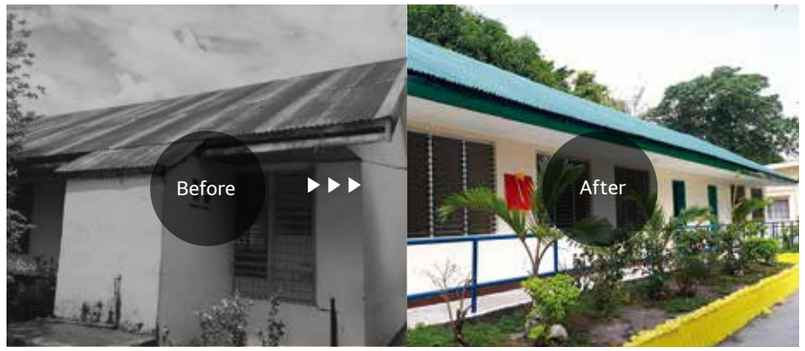
훈련받은 교육 관계자 수
2,770명

훈련받은 학부모 및 양육자
7,352명

사업국가

가나, 남수단, 네팔,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네시아, 잠비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필리핀

필리핀 루바오 지역 '안전한 학습 환경 구축 사업'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174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리핀 루바오 시에 위치한 반 로크 다우 초등학교는 1960년대에 건축되어 붕괴 위험이 있고 매우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재단에서는 4개 교실을 개보수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재난 위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1,100명

교실 건축
3개

교실 내부 페인팅
11동

배움의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핍니다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위치한 구기 지역은 내전 피란민이 모인 곳입니다. 2013년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구기 초등학교에는 현재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8년 구기 지역아동센터 설립 등 구기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교육, 식수위생, 아동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안전한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갑니다

2018 주요 보건의료사업 결과

지원 받은 보건소 수
42개

신축 또는 개보수된 병실 및 부대시설 수
19개

훈련 받은 의료인력 수
805명

사업국가
동티모르,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역사회 기초보건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5km 떨어져있어 전에 임신했을 때는 산전 관리를 한 두 번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그 조차 임신 6개월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마을에서 오래된 산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마을보건자원봉사자와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임신 3개월 때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전 관리를 통해 보건 교육, HIV/AIDS검사 및 상담, 혈압약, 구충제를 지원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산사가 아이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4개월, 6개월, 8개월 때 체크해 주었고 출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든 엄마 키트도 주었습니다. 아이는 인근 지역의 병원에 가서 낳았고요. 재단에서 지원해준 사업 덕분에 보건소까지 멀리 걸어가거나 보건소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웃리치(방문 진료)를 통해 임신 중에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었고 출산 이후에 제 아이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세핀 (가명, 40세,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산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역주민 참여 간담회 참여자 수
3,818명

아웃리치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
2,869명

우간다 부시아 지역에서는 임산부 산전 후 관리와 영아 예방접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산모와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단은 영아 생존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개소 및 보건의료인력 훈련을 진행하여 산모와 영아들에게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진료와 모자보건교육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과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합니다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5,500명

신축된 병동, 수술실, 실험실 수
9개

베트남 짜빈지역은 병원이나 보건소 접근성이 낮고 시설도 매우 낙후된 곳입니다. 재단에서는 지역 보건소를 신축하여 진료실과 입원실을 확보하고 물품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보건소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북 영양개선사업을 전개합니다

2018년에는 대북제재 아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양 인근을 포함한 북한 지역의 탁아소, 육아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아동 수
246,700명

지원 아동시설 수
42개

지원 아동 식량
2,860톤





아동보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돌봅니다

2018 주요 아동보호 사업 결과

아동보호 인식개선 활동 수
467건

아동보호 위원회가 조직된 마을 수
35개

아동보호 관련 훈련을 받은 관계자 수
1,144명

사업국가

말라위,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리랑카, 우간다, 캄보디아, 케냐, 탄자니아

아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 세계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보호사업과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4년째 버스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죠.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재단에서는 사장님을 설득해 저와 같이 일하는 아이들의 환경을 더 낫게 바꿔주었어요. 그리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과 학교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젠 3학년이 되어 학업의 끈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브** (가명, 14세)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1,705명

인식 캠페인 진행
20건

세네갈에는 빈곤 아동을 양육하는 이슬람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중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길거리 구걸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착취하는 등 아동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 인식캠페인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착취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학습센터
신규 등록 아동 수
300명

방글라데시에는 약 345만 명의 아동이 일을 하고 이 중 100만 명이 유해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과 협력하여 아동노동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아동노동 이슈 해결을 위한 옹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센터를 구축, 아동이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여 아동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 노동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자립 지원

아동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사업국가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재단은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가축과 종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하루 7시간 동안 돈이 될 만한 물건 등을 주워 팔았어요. 하지만 재단의 지원으로 엄마가 작은 상점을 여시면서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줍지 않아도 되어요. 학교에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모세** (가명, 7세)

아동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주거 및 소득증대 활동 지원 가구
28가구

재단에서는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가정에서 생계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식수위생

맑은 물로 아이의 근심도 씻어내립니다

2018 주요 식수위생사업 결과

신축 및 개보수된 식수시설 수
17개

위생교육을 받은 주민 수
1,125명

조직된 식수위원회 수
18명

사업국가

케냐

나무가 푸른 잎을 무성히 피우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하듯, 아이들에게도 식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단은 기근, 재해 또는 시설 미비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냐 식수위생 지원 사업



아동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24,020명

케냐 나이로비 슬럼지역은 수도시설이 열악하고 화장실도 위생적이지 않아 야외 배변과 오염으로 인한 질병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위생습관 개선을 위해 재단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아동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물도 깨끗하지 않았고 위생시설도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설사하는 아기들이 많았는데 물과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재단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손을 씻어야 하는 때, 식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주변 환경 및 개인위생 관리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점차 마을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과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니엘 (42세, 보건자원봉사자)

인도적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초록우산이 함께 합니다

2018 주요 인도적 지원 사업 결과

아동중심공간 이용자 수
4,708명

재난대응조직이 결성된 지역사회 수
63개

식량 지원을 받은 가구 수
10,692가구

비식량 지원을 받은 가구 수
10,511가구

총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2,783명

아동보호 관련 마을 주민 교육
593건

총 지원 아동 및 주민 수
10,000명

비식량물자 키트 지원
2,000개

인도적 지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장 고통 받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예고 없는 재난에 뿌리 뽑히지 않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사업국가

남수단, 라오스, 말리,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케냐, 필리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듭니다

2017년 8월,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발생한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민족 간의 유혈 사태로 로힝야 민족 약 9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하여 세계 최대의 난민촌을 구성하였습니다. 재단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와 청소년 조직을 구성하고 취약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손 내밉니다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중부 팔루 지역에 진도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2,000명이 넘은 사망자와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난 발생 즉시 긴급대응팀을 조직하고, 인도적 지원 국제기준(SPHERE)에 근거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아동중심공간(Child Centered Space)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아직도 부러진 나무, 벽돌, 튀어나온 못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센터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매일 친구들과 여기에 와서 놀아요.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예전처럼 학교도 다시 생기고 안전해지겠죠?" **타샤** (가명, 8세)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아동복지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개소 이후
사회적 아동 문제를 이슈화하고 아동옹호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및 사회변화를 촉구하며
다양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
주요사업과 성과

2018년, 아동복지연구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생활지수>을 포함하여 총 14편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과 연계된 연구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제공하고 아동옹호활동의 증거기반을 마련했으며, 전국 사업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2018 SWSD(세계 사회복지 대회) 참가 및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한국아동복지학회,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등 재단의 연구물과 활동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재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 국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누적 연구물

84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

2019
전망과 계획

2019년에도 아동복지연구소는 아동과 관련한 현황 및 욕구 분석과 사회적 이슈 제기를 위한 연구조사 수행,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아동정책 개선 및 옹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동친화적 임팩트 창출을 위한 포럼 개최 <아동복지포럼> <공동기획포럼>

아동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아동친화적 임팩트 창출을 위해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5차 아동복지포럼에서는 '아동행복생활지수' 발표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8년 6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제4차 공동기획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된 비영리기관의 투명성 이슈를 다뤄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8 아동지표 발간

<아동지표>는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아동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기간행물입니다. 7번째 발간된 <2018 아동지표>는 일반 아동현황을 나타내는 일반지표, 국내 17개 시도별 실태를 비교하는 지역별지표, OECD, PISA data 등 세계 속의 우리나라 현황을 확인하는 국제지표로 구성했으며, 매년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해 분석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논문지원사업>

2018년, 7회를 맞은 연구논문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 분야의 역량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비행 및 약물사용 청소년의 탈비행: 돕는자로서의 삶> 등 총 4팀의 신진연구팀을 지원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4건의 누적 연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아동복지전문연구지 <동광(童光)> 113호 발행

1957년부터 시작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 아동복지전문연구지 <동광(童光)>이 재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호로 발간되었습니다. <동광(童光)> 113호는 아동의 '꿈, 행복, 옹호'를 주제로 한 기고문으로 구성됐으며, 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동에게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자님들의
온정어린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펼친 대외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여자 수
6,519명

무연고아동지원 캠페인 <당신이 품다>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품 대신 차가운 현실을 먼저 마주한 무연고 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생계비 및 치료비, 자립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딸랑이 인형 등 베이비키트를 만들며 기부와 물품 지원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지난 한 해 6,519명 후원자님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품다> 캠페인 후기

난우동에서 발견된 남자아이라 ‘무명난우남’이라고 불렸던 아이.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우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은 후원을 통해 병원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웃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아동보호 캠페인 <Slum OUT(슬럼아웃)>

자연재해, 가뭄, 가난으로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도시로 밀려나와 슬럼(Slum)지역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 위생시설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아지원 캠페인 <하루>

참여자 수
1,172명

아픈 몸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 내고 있는 아동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아 및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배우 한효주와 ‘환아복지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환아들이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의 환아복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산타원정대>

참여자 수 **1,036명**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절실한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2회를 맞이한 2018 산타원정대 캠페인에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김동완, 홍은희, 김재경 등의 셀럽이 참여하였으며, 연말에는 트리를 설치하여 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참여자 수
3,357명(건)

시설 영유아 지원 온라인캠페인 <아이들에게 온기를 채워주세요>

2013년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부재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지만 사진작가가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있으며, 모집된 후원금은 시설 아동들을 위한 자립지원비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2,917명

제7회 초록우산 나눔음악회 <초록빛 동심으로 동행>

10월의 가을밤, 재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란 홍보대사의 사회로 시작한 음악회는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아동권리창작뮤지컬단, 인재양성 아이리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단의 공연과 함께 이예랑 친선대사,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서희태 지휘자, 에이핑크 등 국내 정상 아티스트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가슴 따듯한 나눔의 음악 선율로 가득 채웠습니다.

조손가정지원 캠페인 <할머니의 더덕은 다인이의 따뜻한 밥 한 끼>

2018년 6월부터 조손가정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발에 괴사가 오고 이가 다 빠졌지만 매일 새벽 더덕과 도라지를 팔러 집을 나서는 고모할머니.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할머니의 병원비 및 생계비를 가정에 지원하였으며,
후원 물품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4,681명(건)



재단 창립기념 행사 <초록우산 천사데이>

2014년부터 매년 10월 4일을 기념해 후원자의 이름이 걸린 우산을 청계광장 인근 청계천에 전시하며 사회적으로 나눔 문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Slum OUT 캠페인과 연계하여 배우 김사랑과 함께 슬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수
5,551명

KBS 1tv <동행>

가난의 굴레에 갇힌 아이와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149명

연합뉴스TV <하모니>

난치 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뉴스TV와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1,102명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국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아들을 위해 지난 28년 간 이어온 대국민 모금 캠페인으로 2018년에도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방송에 많은 후원자가 참여하여 아픈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KBS 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손쉬운 나눔 문화를 이끌고자 KBS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RS모금지원금 **440,934,000**원

참여자 수
1,424명

JTBC <나눔에세이, 그곳으로 가다>

도움이 필요한 해외 아동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후원자와 함께 아이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380명

MBC <나누면 행복>

2018년 격월로 진행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아들과 간병에 지친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참여자 수
1,097명

SBS <희망TV>

SBS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학교 건립을 포함하여 국내 환아 지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희망TV> 후기

"후원자님 덕분에 일상이 변했어요."

방송 촬영 이후 제 일상이 많이 변했어요.
쓰레기장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고 기숙학교인
루이루 시니어 스쿨이라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저 또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후원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 토니 키오코(16세, 남)



초록우산과 함께 걷는 사람들

Goodwill ambassadors



초록우산의 든든한 지원자,
스타 서포터즈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단과 함께 동행합니다.

전국후원회장

최불암 | 재단 후원자를 대표하는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역의 후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대자동차 산타원정대', '코레일 협약' 등 전국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나눔대사

고두심 | 36년 간 국내 및 해외 어린이의 성장발달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시 낭송 재능기부에 참여하였으며, 초록우산 나눔음악회 in Jeju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한 인재양성 지원 아동과 특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시에라리온 해외봉사활동과 아동 인성 함양을 위한 MBC 라디오 내레이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홍렬 | 2005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홍렬의 락락페스티벌>이 14회를 맞이하며 대구광역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정상가수의 재능기부 무대와 스타의 애장품 나눔경매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고 모금액 2억 4천여만 원이 모였으며, 대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밖에 나눔강연 <이홍렬의 Fun-Donation>을 통해 각 지역의 후원사 임직원 1,470명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김경란 | 나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남수단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어린이합창대회', '제7회 나눔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사회자로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추신수 | 체육 꿈나무와 환아가정을 위해 총 3억 1천만 원의 기부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광렬 가족 | 가족과 함께 국내·외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특히, <Never Give Up 차량전달식>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염정아·허일 |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재단의 무연고 아동 지원 '품다'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는 등 부부가 함께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 빈곤 국가 어린이들의 실상을 렌즈에 담아 널리 알리고 토크콘서트로 나눔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외수 | 매년 <이홍렬의 락락페스티벌>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며 나눔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김윤진 |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활동 속에서도 산타원정대 참석, 후원금 기부, '세상이 품다' 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등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고은 | 2016년 홍보대사 위촉 후, 국내 아동 지원을 위한 '희망의 K박스 전달', 'MBC 나누면 행복' 내레이션 참여, 해외봉사활동 등에 함께 하며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뽀롱뽀롱 뽀로로 | 실종유괴예방팔찌 캠페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며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요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꼬마버스 타요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 2018년 재단과 함께 케냐를 다녀오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해외아동 후원금 지원, '천사데이' 참석 등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선대사

손은서 | '제1회 후원회의 밤'에 함께하여 후원회의 나눔 활동을 응원했으며 '함께, 초록우산' 캠페인 포스터 촬영, 'KOSOA 오른손이 왼손에게' 참석 등을 통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신애 | 국내 골프 인재양성 지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친필 편지와 함께 유니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예랑 | 인재양성 지원 아동 멘토링을 통해 아동이 성장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을 누비며 멘토-멘티 합동공연을 통해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자님께 나눔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다감 | 국내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재단의 다양한 행사에 함께하여 저소득 아동들의 천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박상영 | 재단과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 장학생으로 인연을 맺은 박상영 대사는 2018년 재단의 친선대사가 되어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아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효준 | 2018년 신규 위촉된 임효준 친선대사는 쇼트트랙 선수를 꿈꾸는 재단의 인재양성 지원 아동 이비호군과 인연이 되어 후원금 지원뿐 아니라 멘토로서 꿈을 키워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수빈 | 'KBS 동행'을 진행하며 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8년, 친선대사가 되어 어린이날 행사 및 나눔파티 진행자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고등학생 대상 특강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홍보사절단

곽정&하피데이앙상블 | 2018년에도 우리에게 음악으로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한사랑장애영아원 아이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기부하였습니다.

미코리더스 | 한국미의 대표, 미스코리아 당선자로 구성된 미코리더스는 김장김치 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즐거운 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갑니다.

프로응원단장협의회 | 프로스포츠 응원단장이 모인 협의회는 경기장의 뜨거운 열정으로 재능기부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에게 재단과 아동복지사업을 홍보하며 국내아동을 지원합니다.

베세토오페라단 | 한국의 문화 예술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문화활동참여에 소외된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함께 만든 초록우산 70주년

Supporters activities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 김은택 후원자

참여자 수 **100**명

후원자와 함께하는 미니TALK콘서트 <초록우산 소행성>

'나눔의 소소한 행복과 성장'이라는 뜻의 '초록우산 소행성'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후원자가 직접 전하는 나눔의 행복과 아동이 전하는 성장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2018 신규 헌액자 수 **75**명

누적 헌액자 수 **372**명

**명예의 전당은 30주년 장기후원자 1,875명을 포함하여 매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후원자님의 헌액 의사를 확인하여 등재합니다.

명예의전당 헌액식 <함께 걸어온 30년, 참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소망하며 30년 이상 재단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장기후원자님을 명예의 전당에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조금 주고, 심적으로 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나눔의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 문철 후원자



가족후원자 행사 <초록우산이 좋다, 패밀리가 함께 온다>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나눔의 뿌듯함을 느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눔의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가족후원자 행사 '초록우산이 좋다, 패밀리가 함께 온다'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미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네요." - 봉원훈 후원자

참여자 수 **64**가족 (**274**명)

초록우산 후원자 봉사활동 <초.능.력>

후원자님과 함께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찾아 2월에는 눈썰매를 함께 타며 신나는 하루를, 6월에는 일상을 함께 보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3월에는 한사랑마을이 반짝반짝 빛나게 대청소를 하는 멋진 능력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다름>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큰 선물을 한 보따리 받아 갑니다."

- 육00 후원자 참여소감

참여자 수 **78**명(총**3**회)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 <초.보여행 (초록우산 보물찾기 여행)>

후원자님과 함께 7월에는 케냐, 8월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했습니다. 재단의 사업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아이들과 함께 예체능 활동, 놀이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배운 만큼, 아이들에게도 이번 방문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이자 기회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원과 관심이 그 먼 땅, 케냐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날개 짓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상현 후원자

방문국가: 케냐, 스리랑카

참여자 수 **30**명

